

# 명리원전 『적천수(滴天髓)』의 판본 연구

나혁진\*,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 A Study on the Editions of Myeongri Original Text ‘Jeokcheonsu’

Hyeok-Jin Na\*, Ki-Seung Kim\*\*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청대와 중화민국,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의 평주와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명리원전인 『적천수(滴天髓)』의 판본을 고찰해보는 것이다. 『적천수』의 원저자는 송대(宋代)의 경도(京圖)이며, 원말(元末)·명초(明初)의 유기(劉基)가 원주를 달았고, 청대(清代)의 임철초(任鐵樵)가 증주를 달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문의 저술 시기가 명대(明代) 중기 이후로 가정하게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이 저술이 송대의 것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그 저자 또한 송대의 경도(京圖)일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또한, 초기 판본을 출판 간행했던 진소암과 정지운의 진술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저자 인식에 부정적 의견도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적천수(滴天髓)』의 판본 4종, 진소암이 편집 출판한 『적천수집요』, 천경당 목각본을 정지운이 비교정한 『명리수지 적천수』, 임철초가 주석하고 손형보가 간행한 『적천수천미』, 임철초 주석본을 서락오가 편집 간행한 『적천수정의』에 기록되어 전하는 원문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적천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향후 평주 비교 연구 등 관련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적천수, 적천수집요, 적천수천미, 명리학, 판본 비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ditions of ‘Jeokcheonsu’, the best Myeongri Classic in name and reality, that was featuring dozens of annotations and interpretations from the Qing Dynasty to the Republic of China, and modern times. The original author of ‘Jeokcheonsu’ was Gyeongdo of the Song Dynasty, firstly annotated by Yugi of the late Yuan Dynasty to Early Ming Dynasty, and Im Cheolcho of the Qing Dynasty annotated again. However, several observations in the original text suggest that the author's period of writing is postulated since the middle of the Ming Dynasty, and if the book is not likely to belong to the Song Dynasty, the author is also unlikely to be Gyeongdo of the Song Dynasty. Besides, if you look at the statements of Jin Soam and Jeong Jiwoon, who published the early editions of ‘Jeokcheonsu’, there are many negative opinions about the usual author recognit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ur existing editions of ‘Jeokcheonsu’, ‘Jeokcheonsu-Jibyoo’ edited and published by Jin Soam, ‘Myeongri Suji Jeokcheonsu’ revised by Jeong Jiwoon, ‘Jeokcheonsu-Cheonmi’ annotated by Im Cheolcho, and ‘Jeokcheonsu-Jingui’ edited and published by Seo Rako.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us understand ‘Jeokcheonsu’ more deeply and help us with related research, such as comparative studies of annotations in the future.

**Key Words** Jeokcheonsu, Jeokcheonsu-Jibyoo, Jeokcheonsu-Cheonmi, Myeongri, Comparison of Editions

Received 22 Jun 2021, Revised 29 Jun 2021

Accepted 08 Jul 2021

Corresponding Author: Ki-Seung Kim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명리학의 역사 속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리 이론의 성립은 송대(宋代) 서자평(徐子平)에서 출발하였다. 서자평은 일간(日干) 중심의 사주 간명법을 주창하였고 『명통부(明通賦)』를 저술하여 그의 이론을 후대에 남겼다. 서자평의 명리 이론은 서승(徐昇)에게 계승되어 『연해자평(淵海子平)』의 저본(底本)을 이루는 기록들을 남겼고, 명대(明代)에는 만민영(萬民英)의 『삼명통회(三命通會)』와 장남(張楠)의 『명리정종(命理正宗)』이 세상에 나오며 서자평의 이론은 대중화되고 중흥기를 맞이한다. 그런데 이런 명리가들의 계보와 역사 흐름 사이에 출중한 한 권의 명리서가 놓여있는데 그것이 바로 『적천수(滴天髓)』라고 불리는 명리원전이다.

『적천수』는 명나라 개국공신인 유기(劉基, 1311~1375, 字 유백운)의 책으로 역사적 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으므로 명(明)·청대(清代) 명리가들에게는 유기(劉基)의 『적천수』라고 받아들여 왔고 그 내용 또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유기(劉基)는 원나라 말기 절강(浙江) 사람으로 원나라 순제 원통(元統) 원년(1333)에 진사가 되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고향에 내려가 숨어 지내다가 지정(至正) 18년(1358) 주원장(朱元璋)이 세력을 넓히던 중 초빙을 받아 주원장의 모사(謀士)가 되었고 다양한 정치적 조언을 통해 천하를 통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명나라가 건국된 뒤 어사중승(御史中丞)에 올랐고 성의백(誠意伯)에 봉해졌다. 『적천수』가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집주(集註)한 명리서라고 하니 세상의 어떤 이가 신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사(正史) 중 하나인 『명사예문지(明史藝文志)』에 ‘유기삼명기담적천수(劉基三命奇談滴天髓)’라고 분명히 그의 이름이 적혀있어서 후대인들이 더욱 의구심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적천수』가 유기(劉基)가 집주한 명리서가 분명하다면 이 책의 시기는 『연해자평』의 원저자 서승보다는 후대지만 『삼명통회』와 『명리정종』이 쓰여진 시기보다는 앞서게 된다. 유기(劉基)라는 인물에 가려져 이론적 계통이나 명리 이론의 흐름을 놓치게 된 것은 아닌가하는 자문을 해보며 이 연구를 시작해 본다.

이 논문은 『적천수』의 저술 시대와 저자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청대와 중화민국 시대의 후대 명리가들이

『적천수』를 바라보는 다양한 해석과 시각들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선행적으로 진행하였다. 현재 유전되고 있는 『적천수』의 4가지 판본을 찾아 살펴 보면서 이 판본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연구하고 혹은 출판하였던 이들의 견해를 추적하였다. 그리고 편집되고 출판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적천수』의 다양한 판본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후일 저작된 다양한 주석 중에서 하나의 원문을 두고 왜 다른 견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중 어떤 해석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2. ‘적천수(滴天髓)’의 의미

『적천수(滴天髓)』라는 서명(書名)의 핵심은 ‘수(髓)’라는 글자에 있으므로 이 3글자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우선 ‘골수 수(髓)’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골수’란 뼈 사이에 채워져 있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인체에 가장 중요한 혈액을 만들어 내는 줄기세포를 담고 있다. 이는 상징적으로 가장 정화된 것,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핵심이 되는 비밀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연해자평(淵海子平)』 중의 <촌금수수론(寸金搜髓論)>, 『삼명통회(三命通會)』 중의 <명진선생골수가(明津先生骨髓歌)>에서 ‘수(髓)’라는 글자가 쓰이고 있으며, 『연해자평』 <인감부(人鑑賦)>에 “부귀의 유래를 살피면 쉽게 알 수 있고 깊이 감추어진 뼈를 주의 깊고 신중하게 살피는 것을 통해 이를 취하고 알 수 있다.”<sup>1)</sup>라는 글월이 있으니 사람의 육신에 깊이 감추어진 골수를 통해 命의 귀천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연해자평』 <금옥부(金玉賦)>에 “홍범수종(洪範數終), 연원골수(淵源骨髓)”라는 구절에서도 ‘골수’의 의미는 ‘적천수(滴天髓)’ 중의 수(髓)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적(滴)’은 물방울이란 뜻이고 액체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물방울이란 아주 작은 것으로 황하의 물이 도도하게 흐르는 것과는 다르다. 『적천수(滴天髓)』의 원문을 보면 매우 간결한 줄임말로 구성되어 있고 개괄적이며 어떤 상세한 논술이 펼쳐져 있지도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적(滴)’은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넓은 파

1) “察富貴之由易見 假使粗細深藏之骨 就得而知”, 『淵海子平』 <人鑑賦>.

장을 일으키듯 작고 간결한 문장이 화두가 되어 큰 의미로 확장될 것을 예견한다. 또한 ‘적(滴)’이라는 글자는 ‘점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생명이 조금씩 일본일초씩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천도(天道)의 운행은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적천수(滴天髓)』는 매우 간결하고 압축된 문장으로 천명(天命)의 이치를 밝히고 핵심적인 정수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끝없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천도(天道)의 정수(精髓)를 의미한다.

청초(淸初) 예부 상서를 지낸 진소암(陳素庵)이 순치 15년(1658)에 편집(編輯)한 『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의 자서(自序)에서 그는 ‘적천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명명미아(但命名未雅, 기론차역과참착(其論次亦頗參錯)”<sup>2)</sup>이라고 기록하며 이 술을 이르는 이름이 우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선대 상위 지식인층에 속했던 진소암이 보기에는 ‘적천수(滴天髓)’라는 3글자의 의미가 크게 심오하거나 우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 3. ‘적천수(滴天髓)’의 저술 시대 및 저자 고찰

#### 3.1 ‘적천수(滴天髓)’의 저술 시대 고찰

『적천수(滴天髓)』는 송대(宋代) 경도(京圖)가 원문을 저작하고 명대(明代) 유백온(劉伯溫)이 원주를 추가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적천수』가 이 두 분에 의해 저술되고 완성된 것이 분명한 사실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됐다.

『적천수』라는 이름은 역사서인 『명사예문지(明史藝文志)』에 처음 등장하는데 유기(劉基)의 ‘삼명기담적천수(三命奇談滴天髓)’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청초 저명한 장서가인 황우직의 『천경당서목(千頃堂書目)』에도 유기(劉基)의 ‘삼명기담적천수’라는 서명이 13권 오행류(五行類)에 분류되어 있다. 당시 전적(典籍)의 서적 목록만 기록해 놓은 두 권의 특성상 ‘삼명기담적천수’가 정확히 언제 저술된 것인지,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편집(編輯)된 진소암의 『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가 후대인들에게 가장 오

래된 적천수(滴天髓)의 원문과 원주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도(京圖)의 원문이 송(宋)·원대(元代)에 저술되었다는 점을 고증할 만한 흔적은 명대 이전의 총서 목록인 『송사예문지(宋史藝文志)』 혹은 『보원사예문지(補元史藝文志)』 등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원전의 내용을 살펴봐도 따라가 보더라도 『적천수』가 송대의 저술일 것이라는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첫째, 격국론(格局論)에 기록된 “財官印綬分偏正, 兼論食傷格局定. 影響遙繫既爲虛, 雜氣財官不可拘.”를 살펴보면 이 원문에는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식신, 상관의 팔격(八格)만으로 구성된 격국론이 정확히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명대 만민영의 『삼명통회(三命通會)』에는 財官印食만으로 구성된 격국이 분류되지 않았으며 분명 송대에도 구분되지 않았다. 『연해자평(淵海子平)』의 <보법(寶法)>에 보면 ‘육법(六法)’이라는 이론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팔격(八格)’과는 차이가 있고 주요 격국론으로 부상한 이론도 당시에는 아니었다. 그리고 영향요계(影響遙繫)와 잡기재관(雜氣財官)이라는 것이 『연해자평』의 격국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적천수』의 저자는 이들이 모두 헛된 것이고 구애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으니 필연적으로 『연해자평』의 격국론보다 시대를 뒤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적천수』의 저술은 최소한 남송(南宋) 이후에 저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하지장(何知章)에 기록된 “何知其人富, 財氣通門戶” 등의 문장을 살펴보면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며 반복되는데, 이 형식은 송대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명대 이후 풍수(風水), 육효(六爻), 상학(相學) 등의 고전에 하지장, 하지가, 하지경 등의 명칭으로 대거 등장한다. 예를 들어 명대 풍수서 『양택십서(陽宅十書)』 <하지경(何知經)>을 보면 “何知人家富了貧, 山脚歪斜水翻身” 등의 문장이 수십 개씩 반복된다. 『적천수』에 명대(明代)에나 나올 법한 내용과 형식이 대거 실려 있다는 점은 『적천수』가 명대의 책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적천수』에는 ‘가중(假從)’, ‘가화(假化)’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송대의 『연해자평』에는 ‘중상(從象)’, ‘화상(化象)’에 대한 이론적 논술은 나와도 ‘가중’, ‘가화’에 대한 개념은 없다. 명대의 『삼명통회』에도 ‘가중’, ‘가화’에 대한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 지위론(地位論)에 기록된 “臺閣勳勞百世傳”이

2) 陳素庵·徐樂吾(1999), 『滴天髓輯要·滴天髓補註』, 台北: 武陵出版社: 7.

라는 문장을 보면 ‘대각(臺閣)’이라는 지위가 등장한다. 명대(明代)에는 내각이라는 정치제도를 두었고 그곳의 각료를 중신(重臣)으로 삼았는데, 명대에 양사기(楊士奇), 양영(楊榮), 양부(楊溥)라는 3명이 모두 대각중신(臺閣重臣)에 올랐고 이들이 쓴 시문(詩文)을 가리켜 대각체(臺閣體)라고 하였다. 또 지위론의 “分藩司牧財官和”라는 문장에는 분번(分番)을 다스리는 사목(司牧)이라는 지위도 나오는데 ‘분번제(分番制)’는 명대(明代)에 있었고 송대(宋代)에는 이 제도가 등장하기 전이었다.

진정 송대에 경도(京圖)가 『적천수』라는 책을 저술하였다면 어찌하여 명대에 이르러서야 『삼명기담적천수』라는 책이 취해지고 출판되어 『명사예문지』에 그 책의 제목이 전해졌겠는가? 송대에 『적천수』라는 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추론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앞서 살펴본 『적천수』의 내용과 형식에서도 송대의 책일 가능성은 부인되고 있으며, 한편 청초 순치 15년에 예부 상서 진소암이 『적천수집요』를 집(輯)하였다는 것은 청초에는 『적천수』가 분명 존재하였고 널리 유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의 자서(自序)에서 “託於誠意伯劉基 - 성의백(誠意伯) 유기(劉基)의 이름을 가탁하였다.”는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청대의 저술이라면 명대의 대신의 이름을 가탁하였을 리가 없고 명대의 전설적이고 유명한 대신 유백온(劉伯溫)의 이름을 가탁한 이상 명대(明代)의 책이라는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3.2 ‘적천수(滴天髓)’의 저자 고찰

통념적으로 『적천수』의 원저자는 송대(宋代)의 경도(京圖)이며, 원말(元末)·명초(明初)의 유백온(劉伯溫)이 원주를 달았고, 청대(清代)의 임철초(任鐵樵)가 증주를 달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도(京圖)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기록은 없다. 앞서 『적천수』가 송대의 저술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보았다. 이를 준용한다면 그 저자가 송대의 경도(京圖)일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유백온(劉伯溫)에 대해서는 세상에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유명하다. 그러나 세상에 전해지는 술수학(術數學) 분야의 책 중에 유백온의 저작이라는 책이 너무도 많고 그래서 유명세를 도용한 가탁(假託)이라는 주장에 더욱 무게감이 있을 지경이다. 특히 유백온의 저술은 모두 『성의백문집(誠意伯文集)』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술

수학(術數學)에 관한 내용은 없다. 『명사(明史)』 ‘유기전(劉基傳)’에도 “휘장 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말들은 자세히 알 수는 없고 세상에 전해지는 신기하고 음양(陰陽)과 풍각(風角)에 대한 설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지극히 진실이 아니다.”<sup>3)</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후대인들은 『명사예문지(明史藝文志)』에 실려 있는 ‘유기삼명기담적천수(劉基三命奇談滴天髓)’라는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여 유백온의 저술이라고 믿고 따른다. 하지만 『명사예문지』는 청초 강희(康熙) 연간에 쓰여진 것으로 명대와는 300년의 간극이 있고 그곳에 수록된 책의 저자들에 대하여 가탁(假託) 여부를 변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작품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청초 순치 15년에 예부 상서 진소암은 『적천수집요』 자서(自序)에 “滴天髓之書，乃一知命者所作，託於誠意伯劉基 - 적천수는 命을 아는 누군가가 저술한 것이고 유기의 이름을 가탁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적천수』를 지극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命名未雅，其論次亦頗參錯，且間有不達意者 - 이 命을 이르는 이름이 우아하지 않고 그 논리와 목차 또한 사뭇 뒤섞이고 중간중간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부정적 의견도 드러내었다. 이 내용의 저의를 살펴볼 때 『적천수』의 저자는 상류사회 문인이라기보다는 중간계층 식자(識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소암은 『적천수』의 저자를 “회재이불득자견(懷才而不得自見) - 재주는 있으나 스스로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였고, “고식묘론(高識渺論) - 식견이 높고 오묘한 논리를 가졌으나, “이구전후세(以求傳後世) - 유명인의 후광을 빌림으로써 후세에 전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4. ‘적천수(滴天髓)’의 판본 연구

현존하는 『적천수(滴天髓)』의 판본은 총 4종이 전해지고 있는데, ① 청초(淸初) 순치 15년(1658) 예부 상서 진소암의 『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 ② 강희(康熙)시대 천경당(千頃堂) 목각본을 도광 4년(1824) 정지운(程芝雲)이 보교정(甫校訂)한 『명리수지적천수(命理須知滴天髓)』, ③ 청 중기 임철초(任鐵樵)가 주석하고 손형보(孫衡甫)가 간행한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 ④ 임철초의

3) 顧惟軀語秘莫能詳，而世所傳爲神奇，多陰陽風角之說，非其至也。『明史』<劉基傳>。

주석본을 서락오(徐樂吾)가 편집하고 간행한 『적천수정의(滴天髓徵義)』가 그것이다.

『적천수』의 첫 시작은 명대(明代) 명리학에 정통하고 ‘懷才而不得自見 - 재주는 있으나 스스로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였던’ 한 지식인이 『적천수』를 지었고 유백운의 이름을 가탁하였다고 가설을 세워본다.

원저(原著)에 기초를 두고 처음으로 출판된 후속 판본은 진소암의 『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이다. 이 판본의 ‘감리론(坎離論)’에 참고로 추가 기록된 “原本缺兩頁，從‘主之所喜在坎’起，至‘水奔而性柔者，全金木之神’爲止，原本全缺，茲從別本抄錄補入，特誌之。- 원본에서 두 페이지가 결손되었고 ‘主之所喜在坎’에서 ‘水奔而性柔者，全金木之神’까지 원본이 전부 없기 때문에 별본 초록에 따라 보충하여 넣은 것이며 특별히 이를 기록해 놓는다.”<sup>4)</sup>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통해 추정컨대 순치 15년(1658) 당시 이전부터 최소한 2종 이상의 『적천수』 별본초록(別本抄錄) 판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진소암이 『적천수』를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는지는 『적천수집요』 ‘자서(自序)’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적천수라는 책은 어느 한 명리(命理)를 아는 자가 쓴 것인데, 성의백 유기의 이름을 가탁하였다. 이 책은 干支의 성정을 궁구하고 陰陽의 변화를 통달하고 격국에 구애받지 않고 신살을 쓰지 않으며 단지 命의 이치만을 추구하고 따른다. 파고들수록 미세해지고 미세해질수록 드러나고 있으니 이 도(道)의 정미함에 공경을 표하며 술가(術家) 중 특히 출중하다. 세속에서는 자평(子平)의 오랜 책을 경시하고 너무 높고 멀어 마땅치 않다고 말하고 干支八字를 알지 못해도 수(數)에 그 이치가 있다 한다. 그러나 수(數)를 말하는 것으로는 필시 통하기 어렵고, 이치를 언급해야만 꿰뚫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배우는 이가 이 책을 읽고 자세히 음미하고 익히고 사용하면 命의 이치를 마음으로 자연스레 깨우칠 것이다. 수(數)를 추론하여 쓰거나 하나에 집착하여 만족하면 완전해질 리 없고 억지로 단정하면 증험할 리가 있겠는가? 이 命을 이르는 이름이 우아하지 않고 그 논리와 목차 또한 사뭇 뒤섞이고 중간중간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편(編)과 목차를 고쳐 바로잡고 문구를 조금 줄여서 정리도 하였다. 그러나 구본(舊本)의 관점을 바꾼 것이 있는 건 아니

므로 적천수라는 이름은 유지한다. 아 무릇, 식견이 높고 논리가 아득함이 이와 같은데 어찌 잡다하게 지어 넣어 진정한 뜻을 감소시킬 수 있겠는가? 유명한 이름을 가탁하여 후세에 전하기를 바랐던 것은 세상의 재주를 품었으나 스스로 식견을 얻지는 못한 것이니 만약에 군자(君子)였다면 그 도리를 이겨내지 않았겠는가!<sup>5)</sup>

청대 강희(康熙)시기에 『적천수』 원저를 기초로 삼아 천경당(千頃堂) 목각본이 출판되는데 경도가 찬(撰)하고 유기가 주(注)하였다고 제목이 붙어 있고, 경도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천경당서목』에는 경도가 찬하였다는 기록은 없고 『명사예문지』와 동일하게 유기의 『삼명기담적천수』라고만 적혀있다. 천경당 목각본은 도광 4년(1824)에 이르러 휴양(休陽) 정지운(程芝雲)이 보고정하여 『명리수지적천수(命理須知滴天髓)』로 출판되고 유통되었다. 하지만 정작 보고정하였던 정지운은 원저자 경도(京圖)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데 그가 써놓은 서문을 살펴보면 “若夫以爲京圖之撰，劉基之注，則傳無明文，不敢從而附會之也。- 경도가 찬하고 유기가 주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전해지지만, 명문도 없는데 감히 어찌 이를 따르고 억지로 갖다 붙이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를 통해 저자 논쟁이 계속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지운(程芝雲)이 사용한 저본(底本)은 황우직(黃虞稷)의 『명리수지적천수(命理須知滴天髓)』였다. 정지운이 말하기를 “是書世少留傳，吳門顧耕石侍講，精命術，每奉爲鴻寶，不以示人 - 이 책은 세상에 유전된 것이 많지 않고, 오씨 문중 고경석(顧耕石) 시강이며 정명술이었으니 매 봉오리가 홍보(鴻寶)이며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책 이름에 ‘비수(秘授)’라는 두글자를 붙여 『비수명리수지적천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철초(任鐵樵)가 『적천수』에 주석을 달고 책을 완성

5) 滴天髓之書，乃一知命者所作，託於誠意伯劉基，其書窮干支之情，通陰陽之變，不拘格局，不用神煞，但從命理推求，愈入愈微，愈微愈顯，誠此道之專精，術家之拔萃也。世俗狃於子平諸舊書，或謂其高遠無當，不知干支八字，數也，有理焉。言數則必有難通，言理則無所，學者得是書而詳味熟玩之，命之理曉然於心，用以推數，安有執一而不全，臆斷而罔驗者乎？但命名未雅，其論次亦頗參錯，且間有不達意者。餘故釐正其篇目，而辭句則少點定之，然非有改於舊觀，故仍其名。嗟夫，高識渺論如此，何減於誠意雜撰？而顧附託名以求傳後世，世之懷才而不得自見，若是君者，可勝道哉！（陳素庵，『滴天髓輯要』，自序）

4) 陳素庵·徐樂吾(1999), 『滴天髓輯要·滴天髓補註』, 台北: 武陵出版社: 40.

한 시기를 대략 도광 28년(1848) 전후로 보고 있다. 그가 추가한 명조 사례에 도광 27년을 지칭하는 해석이 나오므로 증주(增註)가 완성된 것은 그 이후일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512개에 이르는 많은 수의 명조 사례와 자신의 견해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어구의 유사도를 살펴보면 『명리수지적천수(命理須知滴天髓)』와 같은 판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철초 주석 원판본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후대에 출판간행자 혹은 전초자(傳抄者)에 의해 선택되고 첨삭되고 변경되는 과정을 겪는다. 『적천수천미』, 『적천수징의』, 『적천수신주』 등의 책이 세상에 전해지면서 편찬 시기에 따라 기록된 글자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원수산(袁樹珊)이 교정과 서문을 쓰고, 사명은행(四明銀行)으로 유명한 손형보(孫衡甫)가 1933년 영인(影印) 출판한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가 현재까지 가장 널리 유행한 판본이다. 적천수 원문의 글자를 비교해 볼 때 임철초가 주석에 사용한 판본은 『명리수지적천수』에 근접하며 거기에 바로 임철초의 주해가 가미된 것이다. 하지만 목차의 순서는 임철초가 주석자로서의 의견이 함의되어 바뀌어 있다.

1935년에 서락오가 편집 출판한 『적천수징의(滴天髓徵義)』도 분명 임철초 주석 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적천수 원문이 『적천수천미』와 또 달라서 판본 연구에서 의문점을 발생시킨다. 목차가 변형된 것으로 보는 가설이 일반적이며, 원문의 글자가 다른 것은 편집 출판과정에서 당시 유통되던 또 한 종류의 적천수 판본을 참고한 것으로 본다.<sup>6)</sup> 그 이후 『적천수천미』와 『적천수징의』에서 파생된 현대의 각종 새로운 판본과 각종 주해서가 출판되었다.

#### 4.1 『滴天髓輯要』 판본과 『滴天髓闡微』 판본

『적천수집요』 판본에는 장절 순서에 숫자가 붙어 있지 않는데, 『적천수천미』 판본에는 장절 순서에 숫자가 붙어 있다.

『적천수집요』는 通天論, 天干論, 地支論, 干支論, 形

象論, 方局論, 格局論, 從化論, 歲運論, 體用論, 精神論, 衰旺論, 中和論, 剛柔論, 順逆論, 寒暖論, 月令論, 生時論, 源流論, 通隔論, 清濁論, 眞假論, 隱顯論, 衆寡論, 奮鬱論, 恩怨論, 順反論, 戰合論, 震兌論, 坎離論, 君臣論, 母子論, 才德論, 性情論, 疾病論, 閒神論, 絆神論, 六親論, 出身論, 地位論, 貴賤貧富吉凶壽夭論, 貞元論, 총 42개의 장절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적천수천미』는 上, 下 2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권 34개 장절, 하권 29개 장절, 총 63개의 장절로 더 세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집요’의 通天論이 ‘천미’에서는 ‘천도’, ‘지도’, ‘인도’, ‘지명’, ‘이기’, ‘배합’ 등 6개의 장절로 세분되고 “五陽皆陽丙爲最, 五陰皆陰癸爲至. 五陽從氣不從勢, 五陰從勢無情義。”의 두 문장은 다음 장절인 ‘천간’ 장절로 넘어가 있다. 또 ‘집요’의 格局論에 들어있는 “官煞相混來問我, 有可有不可”와 “傷官見官果難辨, 可見不可見”의 두 문장이 ‘천미’에서는 ‘관살’과 ‘상관’ 장절로 별개로 구분되었다. 從化論이 ‘중상’, ‘화상’, ‘가중’, ‘가화’로 구분되고, 寒暖論이 ‘한난’, ‘조습’으로 구분되고, 清濁論이 ‘청기’, ‘탁기’로 구분되고, 眞假論이 ‘진신’, ‘가신’으로 구분되고, 順反論이 ‘순국’, ‘반국’으로 구분되고, 戰合論이 ‘전국’, ‘합국’으로 구분되고, 君臣論과 母子論도 각각 2개로 구분되고, 六親論이 ‘부처’, ‘자녀’, ‘부모’, ‘형제’, ‘여명’, ‘소아’ 6개로 구분된다.

임철초는 증주를 추가로 저술하고 500여개의 사주 예시까지 넣는 집필 작업을 거치면서 상당히 길어진 책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지나치게 세밀하여 지리멸렬한 느낌을 주고 있다. 편장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오류는 閒神論, 絆神論 2개의 장절을 ‘한신’이라는 1개의 장절로 합쳐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기반(羈絆)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고 한신(閑神)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집요’와 ‘천미’ 두 판본 사이에는 원주(原註)를 차치하고 원문(原文)의 자구(字句)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50여 개 이상의 글자나 글귀의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집요’ 판본의 자구(字句)가 문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소암(陳素庵)이 『적천수집요』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논리와 목차 또한 사뭇 뒤섞이고 중간중간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이 있어 편

6) 중국의 현대 명리가, 張同全은 『적천수천미』는 黃虞稷의 『명리수지적천수』를 원문 저본(底本)으로 삼았고, 『적천수징의』는 程芝雲이 비교정한 『비수명리수지적천수』를 원문 저본(底本)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編)과 목차를 고쳐 바로잡고 문구를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두 판본 사이에서 자구(字句) 차이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중 일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輯要'와 '闡微'의 자구(字句) 비교

章節	적천수집요	적천수천미	優位
통천론	順則吉兮悖則凶 順悖之機須理會 斷人禍福與災祥	順則吉兮凶則悖 順逆之機須理會 定人禍福與災祥	집요 집요 집요
천간론	胞胎要火 水蕩騎虎 跨雞乘猴 甲來焚滅 水旺物生 火燥喜潤 金多金明 若要物昌 能勝甲兄 壬水汪洋 剛中之德 龍德而運 不畏火土 合戊化火 火根乃貞	脫胎要火 水宕騎虎 跨鳳乘猴 甲來成滅 水潤物生 火燥物病 金多金光 若要物旺 能贏甲兄 壬水通河 則中之德 得龍而運 不惹火土 合戊見火 化象斯貞	천미 집요 × 집요 집요 집요 집요 집요 집요
지지론	速速顯災祥 敗地逢沖子細裁 刑與害兮動不動	速速顯災祥 敗地逢沖仔細推 刑與害兮動不動	집요 집요 집요
간지론	陽順陰逆 其理固殊 陽生陰死 其論勿執 不可使天道莫之覆 庚寅癸醜亦是殺印兩旺 上下貴乎情協 左右貴乎志同	陰陽順逆之說 洛書流行之用… 不可使天道莫之容 庚寅癸醜也作兩神與旺 上下貴乎情協 左右貴乎同志	집요 집요 집요 집요
격국론	兼論食傷格局定	兼論食傷八格定	집요
종화론	眞從之家有幾人 假化之人亦可貴	眞從之象有幾人 假化之人亦多貴	집요 집요
쇠왕론	其於立命之奧	其於三命之奧	집요
강유론	剛柔不一也 不可制者	柔剛不一也 善爲制者	집요
역순론	順其氣勢而已矣	其氣勢而已矣	집요
통격론	兩意本相通 中間有關隔…	關內有織女 關外有牛郎 此關若通也 相邀入洞房	집요
청탁론	時來寒殺也生春 半濁半清無去取	時來寒殺也回春 半濁半清猶是可	집요
진가론	用假終爲碌碌人	用若無爲碌碌人	집요
중과론	抑強扶弱者常理 用強舍弱者元機	強衆而敵寡者 勢在去其寡 強寡而敵衆者 勢在成乎衆	집요
분울론	局內多沉埋之氣者	象內多沉埋之氣者	×
은원론	怨起中間死若灰	怨起恩中死不灰	집요
진태론	震兌勢不兩立 而有相成者存	震兌主仁義之眞機 勢不兩立 而有相成者存	집요
감리론	坎離氣不並行 而有相濟者在	坎離宰天地之中氣 成不獨成 而有相持者在	집요
모자론	始能克譜大順之風	始克譜成大順之風	집요

#### 4.2 『滴天髓闡微』 판본과 『滴天髓徵義』 판본

서락오가 1935년 편집 출판한 『적천수정의』는 『적천수천미』에 있던 장절(章節)의 순서와 번호를 모두 제거하고 뒤섞어 재배치하는 대대적인 편집 작업을 단행한다.

『적천수천미』가 상권 34, 하권 29, 총 63개 장절로 세분되었다면, 『적천수정의』는 통신송(通神頌),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으로 총 5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신송(通神頌)’에 천도, 지도, 인도가 포함되어있으며, ‘제1편’에 논천간, 논지지, 간지총론이 들어있고, ‘제2편’은 형상격국(刑象格局), 종화(從化), 순역(順逆), 체용정신(體用精神)으로 다시 세분화되고, ‘제3편’은 징험(徵驗)이라는 제목이 붙고 육친, 부귀빈천길흉수요, 성정, 질병, 출신, 지위가 들어있고, ‘제4편’은 부유(婦孺)라 불리고 여명장, 소아장이 들어있다.

더욱 세부적으로 『적천수정의』의 장절을 『적천수천미』와 비교하며 차이를 찾아보면 예상보다 많이 뒤섞이고 재배치가 심하게 일어난 것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통신송’ 내의 천도(天道)는 ‘천미’의 천도와 지도가 함께 들어있고, 지도(地道)는 ‘천미’의 인도와 지명이, 인도(人道)는 ‘천미’의 이기와 배합이 다시 뒤섞여 재배치되어 있다. ‘제1편’은 논천간이 제1편(上), 논지지가 제1편(中), 간지총론이 제1편(下)라고 명명한다. ‘제2편’에서는 팔격, 관살, 상관을 합하여 팔격(八格) 하나로 묶었고, 종상, 화상, 가중, 가화를 합하여 종화(從化) 하나로 묶었고, 순국, 반국, 군상, 신상, 모상, 자상을 합하여 순역(順逆) 하나로 묶었고, 체용, 정신, 월령, 생시, 쇠왕, 중화를 합하여 체용정신(體用精神)이라고 묶었다. 한편, 『적천수천미』에서 한신과 반신을 합하여 ‘한신(閑神)’ 하나로 칭하던 것을 ‘징의’에서는 『적천수집요』처럼 둘로 나누고 한신(閑神)과 기반(羈絆)이라고 이름 붙였다. 체용정신(體用精神)의 마지막에 ‘사주총론’이라는 장을 두고 그 안에 한난, 조습, 재덕, 분울, 은현, 진태, 감리, 중과, 강유, 순역, 세운, 정원의 내용을 모두 통합시켜 묶어두었다. ‘제3편’을 징험(徵驗)이라 하여 육친, 성정, 질병 등 사주 실전에 필요한 내용으로 조합한 점이나, ‘제4편’을 부유(婦孺)라 하여 여명장과 소아장을 한 편씩 배열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락오의 대대적인 구성의 재배치와 편집 작업은 『적천수천미』의 열거식 구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멸렬한 느낌을 일순하여 상쇄시키고 독서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서락오의 대대적인 재배치로 인하여 발생한 ‘적천수’ 원문의 위치와 선후 순서의 변화는 모두 성공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적천수집요』와 『적천수천미』 판본에서 ‘전합론(戰合論)’ 혹은 ‘전국’, ‘반국’에 해당하는 “天戰猶自可, 地戰急如火。合有宜不宜, 合多不爲奇。”라는 문장을 제1편(中) ‘논지지(論地支)’ 절에 옮겨놓고 있는데 ‘天戰’이라 함은 천간의 沖剋이고 ‘地戰’이라 함은 지지의 沖剋을 상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설명하는 장절에 포함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적천수천미』 판본에서 ‘중화(從化)’는 하권 육친론의 12~13번째 절에 놓여있지만, 서락오는 ‘중화’ 절을 ‘팔격(八格)’ 뒤로 옮겨놓았다. 이는 진소암 『적천수집요』의 목차에서도 나타나는 구성인데 ‘천미’의 순서보다 ‘징의’와 ‘집요’의 순서가 더 합리적이고 올바르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제2편’에서 팔격, 중화, 순역, 사주총론의 절로 순서가 이어지고 있는데, 순역(順逆)이라는 표제가 다른 판본과 사용 용도가 달라 혼란을 일으킨다. ‘집요’와 ‘천미’에서 순역(順逆)이라는 표제는 “順逆不齊也, 不可逆者, 順其氣勢而已矣。”를 칭하는 것인데, ‘징의’에서는 순국과 반국을 합하여 순역이라고 칭하고 있고 군상, 신상, 모상, 자상까지 포함해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팔격(八格)과 중화(從化)가 중심적 격국론이라면 순역(順逆)에 포함된 내용은 국부적 격국론이라 할 수 있고 격국을 논함에 자연스러운 논지 전개라고 생각된다.

단, ‘징의’에서 순역이라는 혼란스러운 표제를 선택했다거나, 국부적 격국론 내용에 포함되었어야 할 전국, 합국, 진태, 감리 등의 내용을 일부는 ‘논지지(論地支)’에 갖다 놓고 일부는 ‘사주총론(四柱總論)’에 섞어버렸거나 하는 점은 서락오가 격국 부문에 있어 완벽한 구성을 해놓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게 한다. 또, ‘제2편’의 체용정신에서 원류, 통관, 청탁, 진가에 이어서 그 뒤에 은원을 옮겨다 놓은 것도 성공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외에도 세운(歲運)을 사주총론에 포함시켰다거나, 『적천수』의 마지막 원문인 정원(貞元)을 전문(全文)의 마지막 끝에 배열하지 않고 책의 중간에서 그것도 사주총론의 일부 문장으로 취급해 버린 것은 서락오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불합리한 선택이었다.

## 5. 결론

『적천수(滴天髓)』는 송대(宋代)의 경도(京圖)가 원문을 저작하고 유기(劉基)가 원주를 찬(撰)하였다고 전해지며 송대와 원말·명초에 걸쳐 저술된 명리원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팔격(八格)으로 정형화된 격국론을 주장하고, 『연해자평』의 격국론을 칭하여 영향요계(影響遙繫)라고 비유하며 헛된 것이라 평한다는 점, 가종(假從), 가화(假化)에 대한 이론이 독자적으로 등장하였다는 점 등은 『연해자평』과 『삼명통회』 이후에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또한, 하지장(何知章) 형식은 송대에 나타나지 않다가 명대 이후에 등장한 것이라는 점, 대각(臺閣), 분번사목(分番司牧) 등의 지위는 송대에는 없다가 명대에 등장하였다는 점 등이 『적천수』의 저술 시대를 명대(明代) 중기 이후로 가정하게 하는 준거가 된다.

『적천수』가 송대의 저술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그 저자 또한 송대의 경도(京圖)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유백운(劉伯溫)이라는 이름이 술수학 분야에서 가탁(假託)된 사례가 빈번하였고 그 가탁 여부를 변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적천수집요』를 편집 출판했던 진소암의 견해와 『명리수지적천수』를 보고정했던 정지운의 진술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이 책의 저자 논쟁은 오랜 세월 계속됐고, 통상적인 저자 인식에 부정적 의견이 크게 자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적천수(滴天髓)』의 판본 4종, 진소암이 편집 출판한 『적천수집요』, 천경당 목각본을 정지운이 보고정한 『명리수지적천수』, 임철초가 주석하고 순형보가 간행한 『적천수천미』, 임철초 주석본을 서락오가 편집 간행한 『적천수징의』에 기록되어 전하는 원문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집요’와 ‘천미’의 판본을 비교해 보면 장절(章節)의 순서과 구성면에서 그리고 차이나는 원문 자구(字句)의 우위를 판별해 보는 과정에서도 『적천수집요』가 탁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미’와 ‘징의’ 판본을 비교하는 것은 주로 서락오가 단행한 대대적인 편집 작업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왔는데, 구성의 재배치에 있어서 서락오는 『적천수천미』의 열거식 구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멸렬한 느낌을 일순하여 상쇄시키고 독서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향상시켰다고 평가된다. 단, ‘징의’의 일부 구성에서는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불합리한 선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적천수』는 청대와 중화민국,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의 평주와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명리원전이다. 이 연구가 재주를 가졌으나 스스로 식견을 얻지 못했던, 군자의 도리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명리(命理)의 이치를 깨우쳤던 한 명리가의 『적천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향후 평주 비교 연구 등 관련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나 혁 진 (Na, Hyeok-Jin)



- 2020년 9월~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교수
- 2020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동양학박사)
- 2004년 2월 : 시드니공과대학 정보기술학과 (Graduate Diploma)
- 2000년 2월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 관심분야 : 명리학, 정보처리기술, 교육학
- E-Mail : peter750504@naver.com

### References

- [1] 김기승·나혁진(2017), 『명리학사』, 서울: 다산글방.
- [2] 나혁진(2020), “明通賦를 통해 본 徐子平의 명리이론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박헌구(2013), “滴天髓闡微의 中和思想 研究”,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송미규·김만태(2020), “滴天髓闡微 原注와 任鐵樵注의 비교 분석”,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85집, 원불교사상연구원.
- [5] 이영무(2017), “滴天髓闡微 命理理論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이시운(2014), “劉伯溫 命理思想의 哲學的 照明”,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정석원·김만태(2017), “명리원전 滴天髓闡微 通神論 고찰”, 인문사회21 2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 [8] 徐升(2011), 『淵海子平』, 台北: 進源書局.
- [9] 萬民英(2002), 『三命通會』, 台北: 武陵出版社.
- [10] 劉基撰·程芝雲校訂(1824), 『祕授命理須知滴天髓』, 文選樓叢書.
- [11] 陳素庵·徐樂吾(1988), 『滴天髓輯要·滴天髓補註』, 台北: 武陵出版社.
- [12] 任鐵樵·袁樹珊(1986), 『滴天髓闡微』, 台北: 武陵出版社.
- [13] 任鐵樵·徐樂吾(1986), 『滴天髓微義』, 台北: 武陵出版社.

### 김 기 승 (Kim, Ki-Seung)



- 2012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2005년 3월~2011년 4월 : KICU대학원 교수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졸업 (직업학박사)
- 2011년 2월 : KICU대학원졸업(교육학박사)
- 관심분야 : 진로교육, 선천적성, 직업상담, 명리학
- E-Mail : kbs4984@hanmail.net